

“자부심 · 책임감 갖고 적극 행정 추진해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9월 청원 공감 한마당’ 통해 500여 명 시청 직원들과 시청 비전 공유 ·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청 직원들과 공식적인 첫 번째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8기 시청 운영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이 전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9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에서 참석한 500여 명의 시청 직원들과 민선8기 시청 비전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시청 철학과 시청목표, 시청방침, 8대 핵심전략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시 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신, 주어진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시장은 29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9월 청원공감 한마당’ 행사에서 참석한 500여 명의 시청 직원들과 민선8기 시청 비전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천년 역사를 가진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다”면서 “이제는 강

한 경계가 이끄는 변화를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경계가 이끄는 변화를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정을 이끄는 공직자 스스로가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일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기존 사고의 틀을 넘어 다수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 현장을 먼저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달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청원 공감 한마당’을 재개했다.

시는 향후에도 매월 1회 열리는 이 행사를 통해 시청현안을 공유하고 사회 이슈와 정책추진 관련분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서울 북촌한옥마을서 전주 홍보

시, 10월 3일까지 MZ세대 공략 팝업스토어 운영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MZ세대 공략을 위해 서울 북촌한옥마을에서 전주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전주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5일간 MZ세대들의 인기 공간들이 밀집된 서울 북촌한옥마을 한옥카페 공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직접 참여하고 색다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MZ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에서도 전주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실제 전주 여행로를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모주만들기 체험 △요가·명상·다도 체험 △전주여행 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 전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인플루언서 체험단 초청 프로그램과 SNS 인증샷 후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원 전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직접 참여하고 색다른 경험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에게 관광 거점도시 전주 관광콘텐츠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및 서울국제박람회 등 여행박람회 등에서 우수여행도시로 수상하며 마케팅을 인정받고 있다. 본 행사는 적극적 마케팅으로 잠재적 여행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대형 판매 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10월 21일까지 관내 대형 판매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하역장 주변에 종이박스를 다량 적체함으로써 급격한 연소 확대와 동시에 밀폐 공간에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는 안전대책으로 광역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적재물의 적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관서장 현장점검 지도를 통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화재대피 방법 지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하기로 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관내에는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판매시설이 많아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2호 치매안심마을’ 진북동 지정

업무협약 · 현판식 열려

전주시 평화1동에 이어 진북동도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치매안심마을이 된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29일 진북동 주민센터와 숲정어린이공원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와 인근 주민,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진북동은 지난 2일 치매 어르신들이 살아온 터전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 함께 상생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공동체 마을인 전주시 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진북동 주민들은 진정한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극복봉사단 발족 △치매안심거리,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게 지정 △치매인식개선 교육 이나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이날 양청원 진북동장과 장용길 진북동 파출소장,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 정미순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김신선 치매안심센터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치매안심마을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를 가진 환자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짜임새 있는 치매 예방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치매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초등학교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치매 바로 알기 교육을 통해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치매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이를 토대로 향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을 통한 치매조기 발견 △치매 안심거리 및 안심가게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오랫동안 지내온 환경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운영위원회, 지역주민과 더불어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 없는 온정 가득한 진북동 치매안심 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이탈리아문화주간-차오, 전주’ 성료

세병공원 · 전주한옥마을 · 덕진공원 등 곳곳서 방문객 호응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가 일주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전주에서 만나는 이탈리아’ 테마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주이탈리아문화주간-차오, 전주’(이하 ‘차오, 전주’)가 역대 최다인 연인원 1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 대표 국제교류사업인 ‘세계문화주간’은 올해 주한이탈리아대사관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이탈리아관광청 및 10개의 이탈리아브랜드와 3개의 전주브랜드의 후원으로 1주일 동안 전주시 전역에서 개최됐다.

이번 ‘차오, 전주’는 지난 23일 전주향교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방송인인 알베르토 몬디의 사회로 우범기 전주시장과 페데리코 파올라 주한 이탈리아대사, 주한이탈리아대사관 관계자와 이탈리아무역공사 관계자, 서울 무역관 무역관장,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장,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등 주요 VIP와 이탈리아기업등 약 150명이 참

석한 가운데 막이 올랐다. 이어 지난 24일 세병공원에서 열린 이탈리아대사관에서는 전주시와 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의 호텔조리학교 SAFFI의 교수의 시사회, 이탈리아 기업의 시음, 시식, 언어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재즈와 성악공연이 푸른 잔디밭에서 펼쳐져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같은 날 전주한옥마을 오목대전동정원에서는 커피향 가득한 한옥마을바리스타대회가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 이탈리아 가면 마임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해질녘에는 이탈리아 테너 빈센조 렌티지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펜넬프렌즈의 공연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연화정도서관에서 열린 이탈리아 문학주간에서는 160여권의 이탈리아 문학작품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전주푸드 효천점 마을부엌에서는 이탈리아 푸딩클래스가 진행되고,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이탈로’와 ‘이탈리아식 결혼’ 등 이탈리아 영화가 상영되는 등 1주일 동안 이탈리아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